



“형님의 투병생활, 이제는 그만”

만성 신부전증 형님에 신장 기증해 건강 되찾아 준 신향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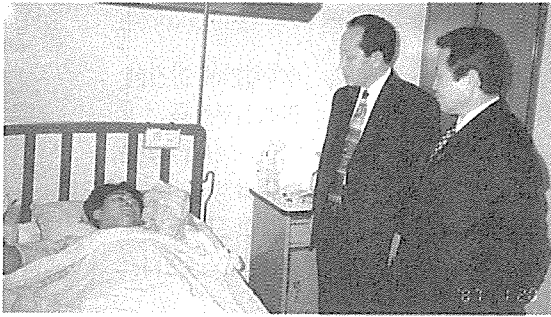


신향식씨(사진 좌)와 형 태식씨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근무하는 신향식씨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형 신태식씨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2년여간 투병생활을 해온 태식씨는 지난 12월 26일 동생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

한편 신장을 이식하는데는 신향식씨의 부인 김남희씨의 적극적인 후원의 힘이 컸다고 알려져, 가족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자신의 과감한 희생이 한 생명을 살리는 미담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건협에서는 신항식씨를 격려하는 뜻에서 지난 해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좌로부터 신항식씨, 성정웅 사무총장, 박철등 서울지부 사무국장)

● 다리 통증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질병의 예고

'91년 11월 어느 일요일 아침 신항식씨는 형 태식씨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곧장 형님 댁으로 달려갔다. 전날 퇴근 무렵,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태식씨는, 별 생각없이 하루를 지냈으나 다음날 통증은 더 심해졌고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아서 걸을 수가 없었던 것.

일요일이라 마땅히 갈 병원도 없었고 또 당시 집안 어른들의 주장에 따라 태식씨를 유명한 한의원으로 데려가 침을 맞도록 했다.

『잘 본다는 의원, 좋다는 한약은 다 써 봤지만 차도는 커녕 다리 통증보다 더 심한 두통까지 왔습니다. 결국 두통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C·T, M·R·I 등 모든 검사를 받고 약물치료를 해 봤지만 나아지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200/110mmHg까지 올라가고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뚜렷한 병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픈 사람도 그렇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안타까움에 속이 타고 똑같은 병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신항식씨는 당시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한다. 평소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던 터라, 누구보다도 애를 태웠던 사람이 신항식씨라고 가족들은 전한다.

● 모든 통증의 원인은 “만성신부전증”

그렇게 6개월을 보낸 신씨 가족은, 마지막으로 서울로 가서 검사를 해보고 확실한 병명이나 알고나서 약을 써도 쓰자고 합의했다. 그래서 신태식씨는 '92년 6월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열흘에 걸친 검사를 마치고 난 결과는 “만성신부전증”이었



6개월만에 발견한
만성신부전증.
그러나 신태식씨는,
그간의 약물 투여 등으로
신장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다.

다.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던 것이 영똥하게도 (?) 만성신부전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약물·신경제·주사약 등을 계속 투여한 탓으로 태식씨의 신장은 모두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생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 혈액투석, 그 힘겨운 투병생활

신장이상으로 인한 통풍성 관절염, 고혈압, 어지러움 등 합병증 세까지 겹친 상황이었으므로 이제는 신장이식을 통한 치료가 아니면 혈액투석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말이 신씨 가족을 아연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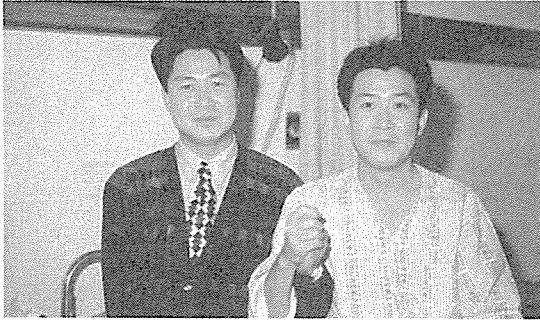
『종합건강검사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가족들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제 자신이 그때만큼 미웠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신향식씨는 회고하면서, 그후 가족 건강검진에 각별히 신경쓰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한편 신태식씨는 한양대병원에서 인공신장 사용을 위한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와 주 2회씩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했다. 2년여의 투병생활은 그와 가족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기에 족한 세월이었다.

● 아내와 의논 후 형님께 신장기증 결정한 신향식씨

그런데 신장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며 내심 고민해 오던 신향식씨는 형 태식씨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한쪽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부인 김남희씨에게 털어놓았다.

『아내는 뜻밖에도 쾌히 승낙해 주더군요. 결혼 후 저만 믿고 살아 온 사람인데, 이런 일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가 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두 형제의 모습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았다. 신항식씨의 결심을 들은 부모님과 태식씨는, 좋아하기는 커녕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남으로부터 신장을 사거나 기증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신항식씨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히 일을 추진해 나갔다.

● 따뜻한 형제애가 재생의 기쁨을

신항식씨의 고집에 따라 마침내, 서울에 사는 누님의 도움으로 서울대 신장전문외의 인규리박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형제는 모든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뿔뿔이 기뻐했다.

그리고 12월 26일, 두 사람은 각각 수술대에 올랐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일은 무사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 일과 두 형제가 웃으며 마주보는 일 뿐이었다.

『저는 항식이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항식씨와 제수씨의 생명과도 같은 은혜는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회복을 위해 병실에 누워있던 신태식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형제 아니라 부모라도 쉽지 않다는 장기이식을 결심한 신항식씨와 부인 김남희씨, 이것은 따뜻한 사랑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태식씨의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두 형제의 모습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했다. ㉞